

4.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좀 더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경쟁이 시도되고 있다. 이상적 사회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를 향해 사회를 혁신해 나갈지,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갈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사상’(I.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 - 1.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사상 내 2번 소항목 주제) 및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정치의 의미와 성격’(I. 민주 정치와 법 -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내 1번 소항목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태도’를 논술 주제로 택했다.

어느 사회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를 어떤 태도와 과정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 확실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현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은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민거리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악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나은가? 주변과의 연대와 협력,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현실 논리에 따라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나은가? 결국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할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본 논술고사는 사회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현실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모순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술고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파악함으로써 협력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및 잘 알려진 교양서적에서 발췌한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텍스트의 의미는 그 자체로 고립적이거나 일의적이지 않고,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통하여 여러 텍스트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닌,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5.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고등학교 고전』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교학사	2013	123~124	無
	『고등학교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3	12~15	有
[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3	22	有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 지음, 이한구 옮김	민음사	2006	261~262	有
[다]	『고등학교 고전』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천재교육	2013	262~266	無
[라]	『고등학교 고전』 (<창에에게 답하다(答蒼崖)>)	박지원	해냄에듀	2013	328~33	無
[마]	『고등학교 문학』 (<탁류>)	채만식	해냄에듀	2013	22~24	無
[바]	『고등학교 문학』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별	천재교육	2013	45~46	無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고전』 및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실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발췌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만책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사자의 용맹과 함께 여우의 기만술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명한 군주는 때때로 현실과 타협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기만할 줄 아는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발췌하였다. 칼 포퍼는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유토피아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 접근법이다. 유토피아적 접근법은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 사회를 구상하고, 그 이상 사회의 청사진에 따라 우리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방법이다. 반면에 점진적 접근법은 이상 사회를 구상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찾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 제시한 글은 이 중에서 유토피아적 접근법의 핵심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일부이다.

제시문은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술집에서 장교와 대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장면인데, 탐욕스러운 전당업자인 노파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대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는 대목이다.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박지원의 『연암집』의 일부인 <창애에게 답하다(답창애(答蒼崖))>라는 편지글이다. 이 글에서는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화담 선생의 일화를 통해 전달한다. 즉, 평생 앞을 못 보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도리어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 길에서 울고 있을 때 ‘도로 네 눈을 감으라’고 일러준다는 얘기다. 눈을 뜨게 되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색깔과 형상이 뒤바뀌고 망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을 다시 감음으로써 자신의 애초의 감각을 바탕으로 집을 찾아가는 과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란 바로 자신의 현재적 조건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일부분이다. 어머니 유씨는 혼수비 일체를 댈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장사밑천을 대준다는 부자 태수의 제안을 딸에게 조심스럽게 꺼내고, 초봉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의 제안에 수긍한다.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 전문이다. 담을 넘는 수양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현실적 과제를 주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한다. 자신을 믿어주는 주변의 협력과 연대, 시련도 단련이라고 생각하며, 장애물조차 도전의 꿈을 꾸게 하는 계기라고 보는 시적 화자는 현실 문제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제시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